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3 교회학교 연합수련회 2023 한마음축제

2023 교회학교 연합수련회: 7.28(금)-29(토)
2023 한마음축제: 7.29(토)

2023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수련회는 영·유아부를 제외하고 "우리들의 여름이야기"라는 주제로 연합수련회로 개최합니다.

기간과 장소는 7월 27일(목) 청년부수련회를 시작으로, 7월 28일(금)-29일(토) 가평에 소재한 서울교회 아가페타운입니다.

교육위원회(김혜연 장로)는 교회학교가 다 함께 찬양하며 뛰놀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시간, 뜨겁게 주님과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9일(토)에는 '2023 한마음축제'가 같은 장소인 아가페타운에서 열립니다. 서울교회는 지금까지 매년 격년제로 체육대회와 찬양대회를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7월의 무더위에 체육대회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즐기는 축제의 시간을 가지고자 '2023 한마음축제'로 진행합니다.

이 큰 두 행사에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

7월 15일(토)-16(주일)

영아부(부장:이갑연 권사)와 유아부(부장:김세호 안수집사) 여름성경학교가 7월 15(토)-16일(주일) "하나님께 예배예"라는 주제로 유아부실에서 열립니다.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해 참석할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스데반회 7월 특강

강사 : 홍범기 박사
(강남세브란스 심장내과)

7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웨민홀



강사:홍범기 박사

스데반회(회장:홍창훈 안수집사)는 7월 특강을 7월 22일(토) 오후 4시 30분에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갖습니다.

강사는 협심증 및 허혈성 심질환, 관상동맥중재시술, 고지혈증에 권위자이신 강남세브란스 심장내과 홍범기 박사님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군외관)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서울강남노회 남선교회 제4회 선교찬양잔치

7월 15일(토) 오후 2시 서울교회

서울강남노회 남선교회 주최 제4회 선교찬양잔치가 7월 15일(토) 오후 2시에 서울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은석 최유희 김영희 장상국 이겸손 임종현 최근우 오명걸 한대석 안수

집사로 구성된 '필그림중창단'이, 필그림양상블(단장:정인주 안수집사 외 3명)이 출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린프로그램 여름학기 모집

1. 학기 운영 : 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2. 23년도 여름 학기: 7. 8일(토)-9. 10(주일), 10주
3. 운영비 : 각 클래스당 월 15,000원
(3개월 : 45,000원) /교회지원 45,000원
※단, 교회지원은 서울교회 등록교인으로 한정하며 1인이 2개 클래스 이상 신청 시, 교회지원은

- 1개 클래스만 적용됩니다.
4. 문의 및 신청 : 남재은 집사(010-9189-8019)
5. 구글 신청서 양식
<https://forms.gle/8SRFfuTYF8ucwEEw5>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클래식기타합주	주일	12:40-	10주	505	장윤식 집사
통기타	주일	12:40-	10주	605	박민서 집사
		토	11:00-	10주	505
베이스기타	토	12:20-	10주	505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90분)	5회	505	최명아 선생
찾아가는힐링연기	토	19:00	10주	701	박재현 배우
말씀(말씀안에 성장성극)	주일	10:00-	10회	505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눅 5:1-11)



손달익 위임목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깊고, 방대하고, 신비로우며 그 어떤 말로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의 100세가 되시던 해 설날에 세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여쭙었습니다.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하나님 사랑 더 많이 알기 원하는 것이지’라고 하시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 한 소절을 조용히 불러주셨습니다. 평생을 수도자처럼 사신 100세의 노 목사님이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여생의 기도제목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밖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몇 줄 안 되는 지식으로 신앙의 모든 것을 통달한 것 같은 허세와 교만을 버리고 진지한 구도적 자세를 일생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8-19). 평생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간절했던 바울의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과 아직도 자신이 미완의 존재임을 깨닫는 자각과 더 성숙한 깊은 믿음을 지향하는 성실성이 항상 담보되어야 합니다. (고전 10:12, 고후 13:5) 이런 신앙여정의 출발점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인 됨의 발견이 구원으로 향하는 영적 순례의 첫 단계입니다.

1. 예수님을 만나다

갈릴리 호수의 평범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젊은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수가 늘어 가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후 그의 배 위에서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 친구의 배를 불려서 잡은 고기를 두 배가 가득 차게 실었습니다.(4-6절) 그리고 배 안에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파스칼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베드로의 순종은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9절에는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신성에 압도되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첫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의 위엄 앞에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격하게 전율하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합니다만 성경은 인간을 신학적 존재(Homo Theologicus)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생을 살다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인간의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2. 죄인에서 제자로

주님께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십니다.(10절) 죄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자기는 죄인이어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다며 부끄러워했던 갈릴리 시골 마을의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로 부르시는 놀랍고도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후 실수와 변절 그리고 영적 침체와 회복을 거치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주님을 만나 동행했던 3년 동안 베드로는 중요한 고백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8절),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세 번째는 요 21:15이하에서 세 번 반복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이며,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인식이고, 세 번째는 자기 사명의 인식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기를 알고 주님을 알며 사명을 깨닫게 되어 거침없는 인생길을 걷고 온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는 순교적 삶을 살게 됩니다.

3. 모든 것을 버려 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형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배와 그물, 가족과 동료들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인식하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예수 한 분을 바르게 발견하고 보니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신 이 한 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하게 된 것입니다.(눅 3:7-8)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배설물처럼 여기던 것들을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끌어안고 지키고 사느라 인생의 모든 값진 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필요한 것들까지도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아 사는 동안 인생의 절정의 삶을 살았고, 인류의 스승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려야 할 것들은 물질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구원하는 선교적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을 버쳐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가루 한 움큼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빈약한 자들을 위하여, 어둠 속에 있는 열방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그러한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과

아직도 자신이 미완의 존재임을 깨닫는

자각과

더 성숙한 깊은 믿음을 지향하는

성실성이

항상 담보되어야 합니다.

'2023 한마음축제'는 이렇게 진행 됩니다!



오윤걸 장로
(2023 한마음축제
부장)

한마음축제의 최대 난제는 언제가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최적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와 대체 공휴일의 영향으로 연휴가 되어 버리는 공휴일들 때문에 날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까지 어른들과 함께 교제하고 뛰노는, 축제의 장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였기에 교육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결정된 날이 학원들이 방학을 하는 주간이며 교회학교 연합수련회가 끝나는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한마음체육대회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회장 : 손달의 위임목사
- 지도 : 장석남 목사
- 총괄본부장 : 이계홍 장로
- 본부장 : 오지열 장로
- 부장 : 오윤걸 장로

이번 한마음축제에는 전문 강사가 초빙되어 사회를 봅니다. 단체 팀별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게임들과 진행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모여 크게 웃으며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를 감안하여 운동장 전체에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얼음물, 아이스크림, 쿨스카프 등 더위를 날려버릴 아이템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더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른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경품들 또한 준비되고 있고 순서에 따라 차주부터 하나씩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분쟁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게 허락하신 교제의 자유와 엔데믹의 끝에서 자유롭게 모이는 행복을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시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MC KIM YO HAN



추억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이승준 안수집사
(유년부 부장)

이번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그분들의 의도를 계속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외여행도, 멋진 피서라는 개념이 전무했던 1992년... 저희 가족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 가족 등 총 10여 명의 대가족이 서울과 대구에서 연합수련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족 단위로 동참했던 분들이 저희 가족뿐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수많은 인파가 종합운동장에서 몇 수십 대의 버스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던 모습은 흡사 이스라엘 민족 대이동이 이랬겠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스펙타클한 광경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제대로 된 숙소도 없는 강의실만 즐비한 대학교 캠퍼스였기에 강의실을 숙소로 급조해서 사용하고 열대야임에도 불구하고 방마다 선풍기도 없

이번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기억들의 편린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92년도 전가족여름수련회' 때의 기억입니다.

서울교회가 막 설립되고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였을 텐데 수백 명의 성도들을 그곳에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했던 의도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저는 이번



서, 건물 밖에서 은색 스티로폴 혹은 돛자리를 깔고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 특강과 집회 그리고 잠자리의 고생도 전 교인이 삼척 바다에 가서 신나게 해수욕을 즐겼던 것과 저녁 캠프 화이어,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즐거웠던 기억들에 묻혀, 1992년 그 3박 4일의 연합수련회는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도 저에게는 서울교회의 구성원으로써, 우리를 더욱 가족 같고 교회답게 (Bonding) 연결, 결합케 해 준 여러 추억 중 하나가 되었고, 서울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했던 추억의 첫 장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상이 변해 2023년 이번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의 행사가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이를 참여할지 말지 고민하는 참가자들에게도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수고스러운지 그리고 비용적으로 얼마나 과해 보일지 이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의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

을 수 있으니깐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들에게 신앙 교육만큼 교회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많이 듭니다. 살면서 문득 교회를 떠올려볼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이런 큰 수련회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함께 모여서 했던 그 행사들이지 않을까요?

이 교회와 이 시간의 주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교인들이 어떻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 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지, 단합을 위한 강력한 연대감은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절대적인 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번 연합수련회에서 경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회의 교회 됨을 위해, 그 교인들의 연합, 단합을 위해 이번 연합수련회에는 모두 함께 동참하여 주심은 어떠실까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김영희 안수집사
(전도위원회 서기)

오는 7월 15일(토) 서울교회 본당 2층에서 서울강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주관으로 '제4회 선교찬양잔치'가 열립니다.

잔치에 앞서 오후 2시부터 경건회(말씀·축도·손달의 위임목사, 봉헌송 김영희 안수집사)를 가진 후 오후 2시 50분부터 선교찬양잔치가 시작됩니다. 잔치에는 9개 교회

12개 팀 150명이 참가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필그림중창단(단장:김



은석 안수집사 외 8명)이 중창으로 '은혜'를 부릅니다. 이어 ◇필그림양상블(단장:정인주 안수집사 외 3명)은 색소폰으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2곡을 연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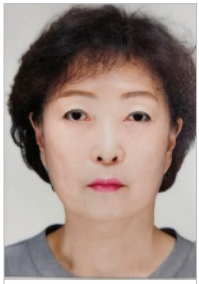
한편 이번 잔치와 관련하여 전도위원회(위

원장:차영도 장로)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점心和 차, 수박을 제공하며 안내 등 손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3 흥해작전을 마치며

선한 목자이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미송 권사
(3교구)

2002년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보호받고, 평안함을 누렸지만 어리석게도 나는 마치 내 자신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므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예상치 못했던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무심히 세상 속으로 떠밀려갔고 말씀과 기도에서, 예배에서조차도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고백했던 내가 현실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뒷걸음질 칠수록 더욱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갈급함으로 성경암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말씀이 함께하고 머리로 외운 구절들이 가슴으로 내려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나를 낙심시킬 수 없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비밀스런 소통으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이렇듯 기쁨 가운데 먼저 내 영이 회복되니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새벽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다리던 "2023년도 흥해작전"이 시작되고 나는 다시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내겐 더 이상 힘들지 않았고 또 날마다 예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

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니 흥해작전 개근은 제겐 당연한 것이었지요.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라는 위임목사님의 능력있는 말씀은 날마다 은혜의 단비였습니다. 우리는 고침을 받았으니 돌아가서 감사를 드리는 은혜자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흥해작전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흥해작전을 섬기신 장로님과 봉사자들과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는 흥해를 건넜고 소고를 들고 춤추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라고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저는 흥해작전 중에 받은 감동이 소중해 오늘도 또 내일도 성경구절을 암송하며 은혜로운 기도를 이어갑니다.



다락방리더 훈련 중강

상반기 다락방 리더훈련이 7월 12일(수) 종강합니다. 혹서기를 맞아 다락방 모임도 방학하고 9월 6일(수)에 다시 개강합니다.

* 흥해작전 후기 계재로 '교회역사 강의 - 한국교회사 50장면'은 다음 주 부터 다시 연재합니다.

교회 에너지 절약 및 청결

혹서기에 들어서며 주일에 교회 전체에 냉방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간혹 부서에서 에어컨을 틀고 퇴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실 시 부서별 에어컨과 전등은 모두 꺼주세요. 또한 부서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식물은 꼭 8층 만 나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결석자 심방 - 사라전도회 김동호 권사님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은 맥추감사절로 성찬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사진: 정승균 안수집사(편집부)

등정



- 우리 결혼했어요
이현재 성도·이지인 성도
(1교구 이우진 안수집사·김일순 권사 차남)

식사 제공

- 6교구 김태원 안수집사·조상희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70인전도대
7월 전도 일정**

날짜	주일 (오후1시-2시)	날짜	수요일(전도회) (오후 1시-2시)	날짜	토요일(선교회) (오후 1시-2시)
7/9	자원자 마리아	7/12	한나	7/15	모세
7/16	자원자	7/19	에스더	7/22	이삭
7/23	자원자	7/26	리브가	7/29 한마음축제	
7/30	자원자				



7월 2일 주일노방 전도-위성남 광명자 서희숙 권사
매 주일 1시-2시까지 자원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7월10일	월	시 130-136		7월10일	월	창 42-46	
7월11일	화	시 137-144		7월11일	화	창 47-50	
7월12일	수	시 145-150		7월12일	수	출 1-9	
7월13일	목	잠 1-3		7월13일	목	출 10-14	
7월14일	금	잠 4-6		7월14일	금	출 15:1-21:32	
7월15일	토	잠 7-9		7월15일	토	출 21:33-26:37	
7월16일	주일	잠 10-13		7월16일	주일	출 27-32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장마와 폭염이 교차하는 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나누는 천국백성 되게 하소서.
2. 15일(토)-16일(주)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27일(목) 청년부 여름수련회의 시작, 28(금)-29일(토) 교육부 연합수련회, 7월 29일(토) 한마음축제가 은혜 중에 준비, 진행되게 하시고, 70인전도대와 전도회, 선교회가 함께 하는 전도사역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잘 헤쳐나가며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로 한 발자국 전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명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